



전북 투표율, 이번엔 50% 훌쩍 넘길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 전북은 48.7% 제8대보다 높은 투표율 나올 가능성 제기돼 늘어난 시군 경합 지역 도지사 선거 변수 주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21일부터 13일간의 대장정의 서막을 알린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임하면서 전북 지역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전북도지사 선거에 5명, 교육감 선거에 2명, 시장·군수 단체장 선거에 41명이 출마했으며, 도의원과 시·군의원 출마자가 403명으로 후보자는 총 451명으로 이른다. 이외에도 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까지 합하면 45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후보자 모두는 치열한 선거운동을 통해 6월 3일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 2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거리마다 후보자들과 선거 운동원들의 유세전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선거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지만 실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도민의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최종 투표율은 50.9%였다.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2,256만 7,8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8.7%를 기록하며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원택 후보 등이 투표율 전망과 관련한 의견을 기자들과 나누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아름답게 달린 연등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지난 24일 김제시 금산사에서 한 관계자가 연등에 소원을 달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예년보다 도지사 선거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지역구에서는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특정 정당 일색이라는 분위기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투표를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정치적 무관심이 일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일부 시장·군수 선거(고창, 정읍, 장수, 군산, 익산, 부안, 남원)에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등록과 일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치권 인파에서는 여전히 일반 도민들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체감 관심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거 관계자들과 후보자들은 열기를 피고 있지만 민생과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선거 자체에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도 투표율의 변수로 꼽힌다. 선거 기간에는 고개를 숙이던 정치인들이 당선 이후에는 도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전북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도지사 선거 경쟁 구도 △14개 시군 단체장의 경합 지역 증가 △정치 불신 극복 여부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북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며 50%를 훌쩍 넘기는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미래와 생활 정치를 결정하는 도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장인 만큼, 도민 스스로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도민을 섬기는 훌륭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장수·순창 주민 65% "지금 삶이 나아졌다"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성적표 '합격'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순창군 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4개월 만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농촌 살리기 정책의 새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전 2200개소였던 가맹점은 올해 4월 말 기준 2,635개소로 435개소가 늘었다. 읍 지역에 200개소가 새로 등록된 데 더해,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35개소가 문을 열어 소비 인프라가 확충됐다.

인구 변화도 뚜렷했다. 같은 기간 장수군 672명, 순창군 869명 등 두 지역에서 합산 1,541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매월 실거주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

농어촌 기본 소득은 4월 말까지 총 2만5,917명에게 259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63%인 165억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22%), 마트·식료품(14%), 주유소(10%) 순으로 생계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주민·가맹점주 1,222명이 참여한 1분기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기본소득이 거주 여건·사회서비스·사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민이 68% 이상이었으며, 67%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상권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전체 결제 중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28%에 달했고, 응답 가맹점의 5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50%에 이르렀다. 특히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31%)이 읍 지역(21%)보다 높아 소외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했다.

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장수·순창군, 전북연구원, 대학 등 민·관·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 두 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RED-FOOD 직구마켓'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물 '장수몰'에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문화·복지 콘텐츠와 장터를 결합한 '행복씨름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6월)'와 면 지역 소비 시 장수몰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유망사회적협동조합·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 등이 지역 농산물과 육류를 직접 배송·판매하고 있다. 6월 중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이동식 '온정장터'를 연다. 7월에는 기아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식품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이동장터를, 고품질을 위해 버섯 하나로 생필품을 주문·배달하는 'AI 로컬 버섯 서비스'도 취약지역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1만호 기자

장수·순창 인구 합산 1541명 ↑ 귀농·귀촌 유인책 효과 '특출' 실생활 밀착형 생계형 지출 주도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총 150만9854명 확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유권자 수가 총 150만9,854명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150만3,541명, 주민등록 제외국민 1,514명, 외국인 선거권자 1,799명을 합한 것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2만2,27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582명 감소한 것이다.

확정된 선거권자 연령별로는 18~19세가 3만3,640명(2%)로 가장 적고, 70대 이상이 32만6,13명(21%)으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53만4,273명(35%)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1만9,324명(1%)으로 가장 적다.

한편,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수는 모두 33만8,568명으로 확정됐다. /특별취재반

왕궁 보석레마관광지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다이노키즈월드 #익스트림 슬라이드 #롤글라이더

Great. Iksan